

『콩나물실명제』 조기정착으로 사랑받는 콩나물 생산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IMF 시대의 어려운 여건하에 우리국민의 전통식품중 하나인 콩나물을 맛있고 깨끗하게 생산하는데 여념이 없으신, 두채가족여러분의 편안하심과 두채가족의 보금자리인 두채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콩나물은 짧은 기간에 키우기가 쉽고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등. 채소식품으로서의 영양가가 풍부하여, 동계채소 뿐만아니라 년중 다소비되고 있는 남녀노소가 전부 좋아하는 전통식품의 하나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는 긴 겨울동안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기에는 가정에서 손쉽게 재배할 수 있고, 여러가지 영양분이 골고루 갖추어진 콩나물이 가장 적합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콩나물 재배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방법을 반복하며, 현대의 발달된 첨단 기계과학과 생물학의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그늘에서 여러가지의 문제점만을 안고 있어 보기에 안타깝기만한 실정이며, 콩나물 재배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부패예방, 고품질관리, 노동력절감 및 용수확보가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지며, 이들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해결책을 찾는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을 찾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공통된 현상이다. 따라서 모양, 색깔 및 씹히는 촉감까지도 고려하여야 함

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식품의 경우는 건강에 매우 민감하여, 몸에 좋다면 소비가 급증하나, 몸에 조금이라도 유해하다고 생각되면 소비를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콩나물의 품질은 소비자의 성향을 고려하여 품질의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콩나물을 선택할 경우 잔뿌리가 없고 색깔 좋은 콩나물을 좋아합니다. 콩깍에서 잔뿌리가 돋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이며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잔뿌리를 다듬어야 하므로 잔뿌리가 적은 것을 선호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잔뿌리도 식품가치가 높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고 물주기가 부족하면 더욱 많이 돋는다. 잔뿌리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은 물을 자주 충분히 주며, 아울러 온도를 낮게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콩나물 색깔은 은빛나는 줄기와 황금빛나는 콩나물 대가리, 그리고 검은반점이 하나도 없는 콩나물을 좋아합니다. 부패를 방지하면 이와 흡사한 콩나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소비자는 공해에 심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콩나물은 법적으로 농약을 사용치 못하게 규제되어 왔으므로 무공해 식품으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콩나물부패가 문제가 되므로 일일허용치내에서 농약사용을 거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콩나물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은 누구나 무공해식품을 선호하여 소위 자연농법으로 재배된 무공해 채소류가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도 소비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만약에 콩나물에 적은양이나마 농약사용이 된다고 하면 콩나물 소비는 격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안타까운 것은 콩나물 농약사건의 기사를 볼 때입니다. 부패를 막고 색깔을 좋게 하기 위하여 호마이등 종자소독제를 사용한다는 보도가 그동안 신문 및 TV에서 여러차례 보도됨으로서, 많은 소비자들이 콩나물 먹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일부업자는 무공해 콩나물이라는 것을 시장에 내어 놓고 비싸게 판매하면서, 다른 업자의 콩나물은 마치 농약을 사용해서 재배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하며, 아울러 일반 콩나물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배와 기온이 높은 여름 및 갈수기의 물 부족등 콩나물 부패가 쉽게 되는 조건에서 고품질의 콩나물을 생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콩나물을 생산하는 것만이 콩나물 산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앞으로 무역자유화에 의해
무공해 콩나물이
일본등지에서 생산하여
백화점이나 슈퍼상점에서
판매한다고 하면,
농약처리된 국산 콩나물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산 콩나물이
무공해라고 인정을 받을때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안정적 소비는 물론이고,
우리의 콩나물은 외국에 더 많은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특별기고/콩나물실명제 조기정착을

앞으로 무역자유화에 의해 무공해 콩나물이 일본등지에서 생산하여 백화점이나 슈퍼상점에서 판매한다고 하면, 농약처리된 국산 콩나물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산 콩나물이 무공해라고 인정을 받을때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안정적 소비는 물론이고, 우리의 콩나물은 외국에 더 많은 수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무공해 콩나물 생산을 위하여, 지난해에도 도내 콩나물 재배업주 300여명을 대상으로 맛있고 깨끗한 콩나물 기르기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콩나물 실명제를 도입하여 포장콩나물과 통으로 출하되는 통콩나물의 외부용기에 업소명, 생산자, 주소, 전화번호 등 재배업소의 실명을 스티커로 제작 부착하여 판매기록 함으로서, 생산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여 농약사용 방지 및 근절

로 깨끗하고 양질의 콩나물을 생산, 안심하고 마음껏

먹을수 있도록 하여 콩나물 소비를 촉진시킴으

로서, IMF시대를 맞아 콩나물산업 활성화

화를 도모하고 건강증진에 기

여하고자, 두채협회와 협조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오는 4월부터는

콩나물실명제가 전면 실

시될 예정입니다.

콩나물실명제야말로

두채가족 여러분이 몇

몇하게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

으로서 앞으로는 농약

시비가 없는 콩나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

자의 불안과 불신을 해

소하고, 일부 불순 콩나

물 재배업자 때문에 엄

청난 타격을 받아온 대

다수의 선량한 재배업자

를 보호하고, 민족전통의

다소비식품으로서의 위



치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콩나물 부패는 재배기술 및 저항성품종의 육성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모든 생물은 각각이 생활하기에 적당한 환경조건이 있습니다. 그 환경조건을 벗어나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콩나물 부패세균이 살아가기에 적당한 환경은 풍부한 양분과 섭씨 25도 내외의 온도조건이다. 콩나물 재배시 이와같은 환경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준다면 부패세균은 증식할 수 없습니다. 즉 콩나물 구석구석까지 물이 흐를수 있는 적당한 물줄기로, 콩나물 주위에 누적된 분비양분을 씻어버려 부패세균이 이용할 수 없게하며, 호흡열을 식혀서 세균의 증식적인 25도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하며, 발아율이 높은 햇콩을 사용함으로써 콩이 모두 발아하여, 발아되지 못한 콩이 썩어서 부패세균의 먹이가 되는 것을 없앤다면, 콩나물은 부패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콩나물 부패세균병방제도 농약의 사용보다는 환경을 조정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서 무공해 콩나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콩나물을 생산합시다. 이길만이 두채 식구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음식업협회는 물론 여성단체등을 통하여, 음식점, 가정 등에서 콩나물 실명제 실시업소 콩나물만 구입·사용하도록 홍보 계몽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콩나물실명제 우수 실시업소는 수거검사등 위생감시를 면제하여 줄 것이며, 미실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제품수거검사 실시등 지도를 강화하여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어려운 여건하에 무공해콩나물 생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두채가족 여러분에게 힘찬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콩나물실명제 실시업소 콩나물만을 구입·사용하시어 신도불이 전통식품인 국산콩나물만이 안전한 국민다소비식품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전 두채가족 여러분께서는 콩나물실명제를 조속히 실천·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IMF경제난국을 맞아 콩나물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에서는 콩나물실명제 조기정착과, 안심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사랑받는 콩나물 생산을 위하여, 성실한 자세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식품안전관리시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두채협회 가족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콩나물실명제야말로 두채가족 여러분이 땀땀하게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앞으로는 농약시비가 없는 콩나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일부 불순 콩나물 재배업자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은 대다수의 선량한 재배업자를 보호하고, 민족전통의 다소비식품으로서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